따뜻한 위로 · 통쾌한 토크 콘서트

전주 문화공간 이룸, 17~19일 이따구 콘서트 · 뒤끝작렬 콘서트 · 남의 떡 콘서트 개최

오는 8월 셋째 주, 전주 문화공간 이룸(이사장 이윤정)에서 시원하고 통쾌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따구 콘서트', '뒤끝작렬 콘서트', '남의 떡 콘서트'가 수, 목, 금요일 오후 7시 30분, 3일 연달아 열리며 각각 다른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연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문화공간이룸의 '이윤정' 이사장이 기획한 콘서트로서, '이룸 오픈 데이 우리들의 버킷리스트'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콘서트다. '이룸 오픈 데이 우리들의 버킷리스트'는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고 싶은, 비전공자를 포함한 전북도민에게 공연장을 오픈한다는 취지의 프로젝트이며 장르불문, 전북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기획, 실현해보고 무료로 무대에 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번 토크 콘서트는, 바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마음에 담아두고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다 같이 털어내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전주 MBC의 '이충훈' 아나운서가 DJ 역할로, '글마음 조각가 김정배'가 이야기 맞장구 역할로 출연하며 인문밴드 '레이'와 게스트가 토닥공연 역할로 콘서트에 함께한다.

1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이따구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콘서트는 '인생에 대한 서러운 불만들과 인생에 분노했던 사연'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진행되고 게스트로 '심소진'이 함께하며, 1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뒤끝작렬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약올랐던 마음들, 누군가가 얄미웠던 사연'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진행되며 게스트로 '이소윤'이 함께한다.

오는 8월 셋째 주, 전주 문화공간 이룸에서 시원하고 통쾌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1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남의 떡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남의 떡이 더 커보여서 속상했던 사연'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진행되고 게스트로 '소리꾼'이 함께 콘서트를 꾸린다.

해당 콘서트는 라디오 방송처럼 사연을 신청받아 진행되며 사연 당첨 시 5~6만 원 상당의 선물과 콘서트 입장권을 수령할 수 있다. 사연 신청 방법은 '문화공간이룸' 인스타그램(ID: erum2235323) DM 또는 카카오톡 채널(문화공간이룸)이나 네이버 톡톡(문화공간이룸) 1:1 대화, 그리고 이메일(erum2235323@naver.com)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콘서트이며 사연을 신청하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하다. 올여름, 찌는듯한 무더위와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 여파의 힘겨운 나날 속에서 지쳐가는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시원한 쉼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공간 이룸에서는 매년 지역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풍부한 문화 향유를 위한 여러 공연을 기획하고 있으며 공연장 대관과 개인 연습실 대여도 상시 진행하고 있다. 문화공간이룸의 공연 소식이나 참여 소식은 '문화공간이룸' 블로그나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윤정 이사장은 "바쁘고 힘든 현대 사회에서 속상한 일들, 억울한 일들도 많을텐데 거기에 코로나까지 더해져 지난 2년여간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며, "그간 힘겨웠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 자리에서 꺼내놓고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며 함께 울고 웃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드리고자 기존에 없던 재미있는 토크 콘서트를 기획해 보았다. 이제 끝나가나 싶던 차에 다시 고개를 드는 코로나 전파로 인해 우려가 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또한 잘 이겨내리라 믿으며 지역민들에게 웃음으로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전북도민들의 여유로운 문화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령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연령별 맞춤형 무료 문화예술교육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강생 모집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전북도민들의 여유로운 문화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령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정원 충족 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먼저 전북지역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놀이터 SORI'는 미술이라는 장르를 어렵게 받아들이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 미술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창의성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기간은 10월 1일~11월 26일까지 8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진행하며 1기(3~4학년)와 2기(5~6학년)로 나눠 기수당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한다.

모집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하며, 내달 8일까지 온라인(sori__2318@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9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는 '어른들의 문화 놀이터 See 作'은 20세 이상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미술작품 감상, 작가와의 대화, 창작활동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금요일 3시간씩 진행하며 1기(오전반)와 2기(오후반)로 나눠 각 30명씩 총 60명을 모집한다. 내달 8일까지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생애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발레로 쓰는 자서전'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내달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주 2회 2시간씩 진행할 계획이다.

발레를 배우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자서전으로 쓰고, 교육 수료 후 발레 발표회와 변화하는 자기 모습을 기록한 아카이브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응원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전당 측은 전했다.

/뉴시스

드로잉 서커스 '크로키키 브라더스' 군산 온다

군산예술의전당, 20일 공연

군산예술의전당이 여름방학을 맞아 준비한 드로잉 서커스 '크로키키 브라더스'를 오는 20일 11시, 14시 2회에 걸쳐 소공연장에 올린다.

드로잉 퍼포먼스 '크로키키 브라더스'는 EBS 딩동댕 유치원의 고정 패널로 출연해 실력을 인정받은 팀으로, 그림 그리는 과정을 통해 재미있는 코미디와 현란한 드로잉 기술을 무대에서 펼쳐 보인다. 기존에 완성된 그림만을 감상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미술이 딱딱하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쉽고 재미있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드로잉 서커스는 드로잉을 서커스와도 같은 화려한 퍼포먼스로 재탄생시킨 크로키키만의 새로운 공연 형태로 그림이 완성되는 동안 관객들은 그들의 코미디에 웃게 되며, 결과가 보이는 순간 생각하지 못한 반전을 맞이하게 된다.

이헌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어린이에게는 미술에 대한 관심을, 성인에게는 일상 탈출의 웃음을 주는 놀랍고 흥미로운 공연으로 올여름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크로키키 브라더스'는 전석 1만원으로 티켓링크(http://www.ticketlink.co.kr/)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하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여름방학 맞이 '예술아, 놀자' 공연 성료

익산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예술체험무대 '예술아, 놀자' 공연을 개최했다.

이 공연은 무대위에 객석을 설치하여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존재하고 교감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됐다. 다채로운 공연을 해설과 함께 놀고, 즐기는 형식으로 관객이 공연을 더 가까이서 보고 즐길 수 있어 열띤 관객 호응도를 보였다.

1부는 익산시립합창단이 '합창, 어디까지 들어봤니?'라는 주제로 클래식 마드리갈부터 현대곡, 가곡, 흑인영가, 현대 가곡, 재즈, 가요,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합창곡을 해설과 함께 준비했다. 특히 현대 가곡에서 들려준 '도라지꽃'은 박지훈 예술감독이 작곡한 곡으로 특히 반응이 더 좋았다.

2부에는 익산시립무용단과 익산시립풍물단의 합동 공연으로 '전통과 노닐다'라는 주제로 태평연화(泰平蓮花), 부채춤, 진유림류 장구춤, 강강술래(新. 강강), 사자놀이, 판굿 등 관객참여를 유도하는 공연으로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무대를 완성했다.

올해 첫선을 보인 '예술아, 놀자'는 지난달 25일부터 사전예약으로 진행해 오픈 한 시간만에 전석(300석) 매진되었고 공연 종료 후에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추가 관람을 요청하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